

정유재란기 정경운의 호남 체험과 그 의미

- 『고대일록』을 중심으로 -

김 종 구*

- I. 서론
- II. 정유재란기의 고대의 피난 여정
- III. 피난민으로서의 호남 체험
 - 1. 위기의 삶과 궁핍한 일상
 - 2. 淸土에서 農·商人으로 전락
 - 3. 피난민의 참혹한 心狀과 극복
- IV. 결론

국문초록

본 논의는 정유재란기 孤臺 鄭慶雲(1556-?)의 호남 체험과 그 의미를 분석했다. 『고대일록』은 정경운이 1592년부터 1609년까지 김성일의 소모유사, 김면의 소모종사관 등을 역임하면서, 임진왜란·정유재란과 관련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유재란기의 피난민으로서의 기록은 전쟁 생활사에 중요한 부분이다.

정경운은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구체적으로 피난 계획을 세우며, 깊은 산의 계곡·암자·사찰을 이용해 호남으로 건너가고 있었다. 茶洞과 六十峴 등은 피난 여정의 거점 지역이었고, 쉽게 한곳에 거처할 수 없었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연구원 / piny0928@hanmail.net

다. 피난한 지 5개월이 지나서 용담현에 피난처를 마련할 수 있었다.

피난민 정경운의 호남 체험은 첫째, 위기의 삶과 궁핍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전쟁으로 일어난 전염병과 궁핍에서 오는 질병을 감수해야 했고, 딸과 늦게 태어난 아들도 잃게 되는 불운을 감지해야 했다. 그는 나머지 식물을 챙겨야 했기 때문에, 마을과 시장에 가서 구걸하는 설움을 참으며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둘째, 피난민으로 살아남기 위해 소금 장수가 되어 상인으로 전략하게 된다. 소금을 매입하여 다시 되팔기도 하고, 그 외 장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하는 일 없이 同類와 시장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전쟁 등 정보와 살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직접 농사를 짓지만, 그 수확은 미미했다.

셋째, 개인의 心狀을 드러내며, 전쟁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제사 등 일상이 파괴된 점을 통곡하고 있었다. 하지만 벗들과 교류를 하며 전쟁 피난민의 울분을 극복하고 있었다. 山水를 통해 잠시 그 仙境을 만끽하며, 역설적인 心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시를 읊으며 마음을 中和하고자 했다.

◆ 주제어

孤臺 鄭慶雲, 孤臺日錄, 정유제란, 피난민, 호남 체험, 일상, 商人, 心狀

I. 서론

丁酉再亂은 음력 1597년 8월 도요토미 정권이 임란의 정전회담이 결렬되자, 다시 조선을 침공하여 다음 해인 음력 1598년 12월까지 지속된 전쟁이다. 일본은 後陽成天皇의 연호에 따라, 게이초 전쟁[慶長けいちょうの役えき 게이초노에키]이라고 한다. 왜군의 수군은 남해안 대부분의 제해권을 장악했고, 육군은 음력 1597년 8월 15일, 8월 19일에 남원 전투, 전주성 전투 등 남원과 전주를 함락시키고, 진라도를 점령·충청도 稷山까지 진격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孤臺 鄭慶雲(1556-?)은 피난의 길을 떠나게 된다.

고향 주변의 絶勝인 小孤臺에서 ‘孤臺’라 자호했다. 경남 咸陽에서 承文院 副正을 지낸 鄭栗의 아들이다. 그는 鄭仁弘의 문하이고, 朴汝樑·盧士尙·吳長 등과 교유했다. 『孤臺日錄』은 1592년부터 1609년까지 초유사 김성일의 소모유사, 의병장 김면의 소모종사관 등을 역임하면서, 임진왜란·정유재란과 관련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정유재란(1597) 때, 藍溪書院의 有司, 1617년에는 남계서원의 원장이 된다.

(가) 丁酉(1597) 〇01월 30일 辛酉
書院에 가서 志夫·景實·景靜·渭瑞 등과 함께 잤다.¹⁾

(나) 丁酉(1597) 〇02월 01일 壬戌
문헌공[정여창] 사당에 배알하였다. 朴公幹이 와서 이야기하였다. 여러 벗들과 함께 察訪 金志和를 찾아뵈었다. 金松庵 夫人의 喪에 弔問하였다.²⁾

1) 정경운, 『고대일록』 제2권, 「丁酉(1597), 春王正月」, “三十日 辛酉 往書院 與志夫 景實 景靜 渭瑞 同宿”(이하 이름 생략) 본 논의의 국역은 정경운·남명학연구원 옮김, 『고대일록』 상·하(태학사, 2009.)를 참고하여 수정·보완을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고전종합 DB와 남명학고문헌시스템을 참고하였다.
2) 『고대일록』 제2권, 「丁酉(1597), 春二月」, “壬戌 朔 謁文獻廟 朴公幹來話 與諸友就見 金察訪志和 弔金松庵 夫人之喪”

(다) 丁酉(1597) ○02월 12일 癸酉

書院에 가서 趙幹甫 兄과 公幹·志夫·渭瑞 등과 함께 모여, 義穀 등에 관한 일을 서로 의논하였다.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왔다.³⁾

위의 (가), (나), (다)의 글은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의 1597년 1월과 2월의 기록이다. 이 글은 정경운의 일상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서원에 가서 소일거리를 하거나 사당에 배알을 하고 同人들과 함께 강학하거나, 서원과 관련된 일을 논의하며 함께 숙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의 喪에 조문하며 선비의 예의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정유재란이 일어나, 피난민이 되어 정경운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정경운과 『고대일록』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우락의 『고대일록』에 관한 총론적 논의⁴⁾가 있다. 다음으로 의병 활동 정경운에 대한 논의는 김운우⁵⁾, 박병련⁶⁾, 최재호⁷⁾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정경운이라는 인물과 그 평가에 주목한 경우가 있는데, 민덕기⁸⁾, 박다현⁹⁾, 설석규¹⁰⁾ 등이 있다. 정경운의 전쟁 체험에 관한 논의는 노영구¹¹⁾, 장경

3) 『고대일록』 제2권, 「丁酉(1597), 春二月」, “十二日 癸酉 往書院 與趙兄幹甫 公幹 志夫 渭瑞 相會議義穀等事 日暮歸家.”

4) 정우락, 「『고대일록』에 나타난 서술의식과 위기의 일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2009, 157~188쪽.

5) 김운우, 「임진왜란 4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특집호 - 경상수도 의병활동의 재조명(남명학과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논문: 「감양 의병유사 정경운과 『고대일록』」, 『남명학연구』 2, 1992, 141~169쪽.

6) 박병련, 「기획논문: 『孤臺日錄』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상황과 의병활동의 실상」, 『南冥學』 15, 2010, 235~273쪽.

7) 최재호, 「기획논문: 壬亂 戰爭實記에 나타난 慶尙右道 義兵의 意識과 視角」, 『南冥學』 18, 2013, 8~57쪽.

8) 민덕기, 「임진왜란기 정경운의 『孤臺日錄』서 보는 아래로부터의 聞見정보」,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141~171쪽.

9) 박다현, 「『孤臺日錄』에 나타난 정경운의 인물평가」, 『역사교육논집』 59, 2016, 131~181쪽.

10) 설석규, 「기획논문: 鄭慶雲의 현실인식과 『孤臺日錄』의 성격」, 『南冥學』 15, 2010, 187~233쪽.

남¹²⁾, 방기철¹³⁾ 등이 있다. 그 외 『고대일록』에 나타난 정경운의 스승 정인홍에 관한 연구¹⁴⁾, 함양 사족층에 관한 연구¹⁵⁾, 시문 연구¹⁶⁾, 과거 체험 연구¹⁷⁾, 明君에 관한 연구¹⁸⁾ 등이 있다. 그리고 자료조사에 관한 영인자료¹⁹⁾도 있다.

전쟁 체험에 관한 논의는 『고대일록』의 전체적 논의가 되었고, 임란 의병장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고대일록』의 서술의식과 정경운의 일상에 관해서는 약소하게 다루지고 있다. 그래서 본 논의에서는 정유재란이 발생하여, 피난민이 되는 정경운의 일상과 삶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선비가 피난민이 되어 체험하는 부분과 그 일상은 주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비의 眞面目은 위기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 피난민 신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면, 조선의 신분제 및 임란 이후의 신분제 동요에 관해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정경운의 心狀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를 밝힌다면, 그의 참 인간상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 11) 노영구, 「전쟁과 일상-孤臺日錄을 통한 임진왜란 이해」, 『역사와 현실』 64, 2007, 17~31쪽.
 - 12) 장경남, 「『고대일록』으로 본 정경운의 전란 극복의 한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2015, 325~360쪽.
 - 13) 방기철, 「韓國思想 史學: 鄭慶雲의 전쟁 체험과 일본 인식」, 『韓國思想과 文化』 68, 2013, 117~143쪽.
 - 14) 신병주, 「기획논문: 『고대일록』을 통해서 본 정경운의 영원한 스승, 정인홍」, 『南冥學』 15, 2010, 307~347쪽.
 - 15) 원창애, 「일반논문: 『고대일록』을 통해본 함양 사족층의 동향」, 『남명학연구』 33, 2012, 229~260쪽.
 - 16) 윤호진, 「孤臺 鄭慶雲의 詩文과 作品世界」, 『남명학연구』 41, 2014, 121~155쪽.
 - 17) 채휘균, 「조선전기 과거응시자들의 과거여정과 체험 - 『孤臺日錄』과 『溪巖日錄』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59, 2015, 477~510쪽.
 - 18) 한명기, 「기획논문: 『孤臺日錄』에 나타난 明君의 모습」, 『南冥學』 15, 2010, 275~306쪽.
 - 19) 자료조사부, 「16세기 유학사상의 전개와 그 특성, 영인자료: 『고대일록』 권 4 (2)」, 『남명학연구』 3, 1993, 79~148쪽.
 자료조사부, 「임진왜란 4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특집호, 일반논문: 『고대일록』 해제 및 자료 권 1」, 『남명학연구』 2, 1992, 383~450쪽.

II. 정유재란기의 고대의 피난 여정

金誠一은 嶺南招諭使로 임명되어 咸陽郡에 도착해, 주변 지역의 士人들을 불러 모은다. 咸陽은 盧士尙·朴籟 등, 安陰은 鄭惟明, 三嘉는 盧欽·朴思齊 등이다. 그 이외 例定有司도 예에 따라 有司를 정하여 義舉를 鼓吹시키고 있었다.²⁰⁾

본인은 비록 재능이 없고 용렬하지만 忠義는 天性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한 번의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고자 함은 감히 남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막 同志들을 규합해 義烈을 격양시키려 하니 원컨대, 足下들과 서로 도와서 함께 하늘을 받들고 해를 씻는 공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죽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서는 忠義의 선비가 되고 죽어서는 충의의 귀신이 되기를 足下께서는 힘쓰시기 바랍니다.²¹⁾

초유사 김성일은 정경운에게 위와 같이 권고하고 있었다. 忠義를 강조하며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고자 했다. 그리고 적을 토벌하여 공적을 이루어 忠義의 선비가 되길 강조했다. 정경운 역시 김성일의 권고에 동의하며, 그의 招募有司가 되어 흠어진 병졸들을 불러 모으는 데 힘을 쏟는다. 이 당시 함양 사족은 조직적으로 도유사(盧士尙·盧士豫), 서기(鄭慶雲·姜縝), 궁시와 병기(朴汝樑·鄭景龍·姜渭老), 군자(鄭淳·盧胄)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들은 남계서원의 유사로 활동하며, 함양 사족의 성리학 및 교육을 담당했던 점이다. 즉 향촌 기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남계서원 원장²²⁾은 盧士豫(1578년), 盧士尙(1584

20)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고대일록』 1592년 05월 08일 기록에 자세히 나온다. 참조 바람.

21) 『고대일록』 제1권, 「壬辰(1592), 夏五月, “當職雖駑劣忠義根於天性 一死報國 敢後於人 方糾合同志 激以義烈 願與足下輩左提右挈 共成柱天浴日之功 足下以爲何 如生爲忠義之士 死作忠義之鬼 惟足下勉之.”

22) 『고문서집성』 24, 『經任案』, 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57~63쪽.(원창애, 「『고대일록』을 통해 본 함양 사족층의 동향」, 『南冥學研究』 33,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년), 盧士尙(1594년) 등이었다. 都有司나 典穀有司를 담당했던 이들은 정경운·박여량·정순이었다. 강린, 강위노 역시 유사를 역임했다. 이들은 우선 의병 모집과 병기, 군자를 모았다. 군사는 騎兵과 槍兵 337명을 확보했다. 정경운이 이러한 의병 활동 뒤, 정유재란에는 피난²³⁾을 가게 된다.

하지만, 정유재란 직전의 정경운의 모습은 선비 그 자체이었다. 남계 서원의 유사로서 그 직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선비의 직분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유재란이 발병하고 피난민의 신분이 되면서, 그의 일상과 삶은 바뀌게 된다. 그는 이미 전쟁이 일어날 조짐을 다양한 소식을 통해 접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은 개인에게는 역부족했다. 정경운은 적이 눈앞에 다가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다음의 자료들을 통해 정경운의 피난 여정을 살펴보자.

(가) 丁酉(1597) 〇〇3월 28일 戊午

조카가 晉州로 갔다. 〇金海에 거주하는 선비 魚가 김해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었다. 日本으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魚의 말에 의하면, ‘壬辰年에 붙잡혀서 倭國에 들어갔다가, 이제야 비로소 도망해 오는 길이다. 그런데 秀吉은 국내의 兵士를 징집하여 나고야[名護屋]에 모아두고,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을 하려고 독촉하였다. 그런데 行長은 가을에 군사를 동원하자고 청하고, 清正은 한여름에 쳐들어가서 보리를 베어 양식을 삼고 朝鮮에서 파종한 벼를 김매고 복돋우면 된다.’고 청한다는 것이다.²⁴⁾

(나) 丁酉(1597) 〇〇5월 21일 辛亥

要時羅가 와서 兵使에게 말하기를, 적장 등이 6월 1일을 擇日하고 병력을 동원

2012, 229~260쪽. 참조하여 재서술.)

23)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실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지 않다. 본 논의에서 분석한 바로는 왜군이 함양으로 바로 진전해, 가족을 데리고 피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그 이유로 추론한다.

24) 『고대일록』 제2권, 「丁酉(1597), 春三月」, “二十八日 戊午 猶子往晉州 〇聞金海居士子魚 至海來 自日本 魚之言 曰壬辰年 被擄入倭 今始逃來 而秀吉 大徵國內之兵 聚於浪古島 急期督戰 而行長請以動兵於秋間 清正則請以衝突於夏至 刈麥爲糧耘 籽朝鮮所播之稻云.”

하여 충돌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²⁵⁾

(가)와 (나)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정경운은 일본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물론 무성한 소문이 전해진 부분도 기록하고, 정확한 근거가 있는 부분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포로로 잡혀간 선비가 탈출해서,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상세히 말하고 있어, 믿을만한 소문이었다. 3월에 이어 5월에는 구체적으로 병력을 동원해 침략할 조짐을 내비치고 있었다. 결국 7월 18일 丁未, 기록에는 원군이 무너지는 처참한 기록을 하고 있었다.

전라도 및 호남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그 역할은 劉摠兵이 “너희 나라는 왜적들에 의해 함락되어千里에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곳은 全羅道 一道뿐이었다. 회복의 토대가 전라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오는 길에 호남 지방을 거치면서 州郡을 두루 찾아보니, 人家의 연기가 거의 끊어져서 고을과 마을들이 쓸쓸하기 짝이 없었으니, 진정 가련하고 민망한 일이었다.”²⁶⁾라고 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라도는 최후의 보루 지역이자, 전시를 회복하는 공간,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경운이 호남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1597년 정유재란이 발병하자, 정경운이 피난을 가는 여정과 그 내용을 도표화한 것이다.

< 표 1 > 정유재란기 고대 정경운의 피난 여정(1597년)

순번	날짜	내용	비고
1	08. 07.	부모님 신주 묘 옆에 묻음, 서원	陳君述과 神版 묻음
2	08. 08.	開心寺	가족과 여러 아낙네
3	08. 12.	북면, 土古와 趙由仁을 만남	산성 소식

25) 『고대일록』 제2권, 「丁酉(1597), 夏五月」, “二十一日 辛亥 聞要時羅來言兵使 曰賊將等 擇日於六月朔日 動兵衝突云云.”

26) 『고대일록』 제1권, 「癸巳(1593), 冬十二月」, “四日 癸丑 曰你國 爲賊所陷千里無人 所恃者全羅一道也 意其恢復根基在於全羅 今余道經湖南歷 兗州郡 人烟罕絕 邑里蕭條 誠可憐憫.”

정유재란기 정경운의 호남 체험과 그 의미(김종구)

4	08. 14.	쇠목[牛項] 앞 雙亭子, 비, 栢田	집안식구, 대구 형수
5	08. 15.	太陽村, 盧景承	피난처 의논
6	08. 16.	寶國庵 피난, 朴承寶·朴弘寶	
7	08. 17.	헛된 경보, 산골짜기로 도망쳐 숨음, 백운산	
8	08. 18.	큰딸, 막내딸 및 노비 所在 파악 안됨, 盧參奉	백운산 바깥 기슭
9	08. 19.	딸 못찾음	백운산 수색, 흥적
10	08. 20.	백운산 계곡, 딸 찾아 나섬, 端兒는 禹婢에 의탁	
11	08. 21.	조카가 산, 貞兒 屍身 찾음	패도로 자결
12	08. 22.	長安山 기슭, 도적 산골짜기 안팎 수색, 살육	
13	08. 23.	백운산 바깥 기슭, 이를 머뭇	
14	08. 24.	산기슭, 朴順이 와서 안부를 물음	
15	08. 25.	언덕 넘어, 산 안 기슭으로 들어감. 노숙	조카 집 奴子, 도망
16	08. 26.	長水행, 梁時望, 白雲山으로 들어감, 黃德璋	德涵
17	08. 27.	중간 역마을, 墨界寺, 스님 救護, 疝症	죽을 지경
18	08. 28.	형수, 가솔 墨界寺에서 만남, 비로소 온돌방	
19	08. 29.	寶國庵, 묻어두었던 책 상자 파내서 갖고 옴	
20	08. 30.	집, 마을 전체 남은 것 하나도 없음	
21	09. 01.	思坪, 목화밭, 들판에 왜놈들 막사가 가득	
22	09. 06.	三述臺, 金僉知와 대화	
23	09. 07.	栢田으로 가 가솔들 만남	
24	09. 08.	奠物, 딸의 널 앞에 곡, 墨界로 돌아옴	
25	09. 09.	遺墟, 丁受明 만남, 應久의 簡子, 姪女 안전	
26	09. 10.	동면, 姜渭瑞, 무탈, 先塋, 유허, 公幹의 안부	신주 묻어둔 곳
27	09. 11.	조카 墨界, 書院, 遺墟, 神板 보존	
28	09. 15.	栢田, 숙모 신주 조문	
29	09. 17.	墨界, 栢田	

30	09. 19.	遺墟, 李維民	
31	09. 20.	假將 朴大脩, 군사 30여 명, 남원 매복, 소식	도망
32	09. 21.	왜적, 雲峯에 진, 도망, 酒谷-蜂谷에 도착	
33	09. 22.	해 뜰 무렵, 적들이 介坪에서 총을 쏘, 산중 묵음	安陰-尋眞洞-玄水寺
34	09. 23.	藍峴, 산중 묵음, 추위 뺏속으로 스며들	
35	09. 24.	靈覺寺 묵음, 盧參奉·盧志夫와 대화	
36	09. 25.	加勿倉에 묵음, 姜君望 형과 대화	
37	09. 26.	姜君望 형, 巨溪로 가서 거주할 만한 땅 물색	물 달고, 땅 기름짐
38	09. 27.	梧峴-雨落洞-君子亭-茶洞, 全幼玉·姜渭瑞 대화	비, 養靜 죽음 생각
39	10. 02.	茶洞, 南原의 왜적 大半이 아래로 내려감	
40	10. 03.	엠티	
41	10. 06.	전라도 왜적 八良을 넘는다는 소문, 도망	茶洞, 도적, 벼 4섬
42	10. 07.	조카와 遺墟로 돌아감	
43	10. 11.	茶洞, 大荒(山陰·黃石·黑石) 등 하늘 연기	사방 도주, 산골짜기
44	10. 12.	집안 식구, 玉山倉, 梧峴	
45	10. 14.	全幼玉, 盧參奉과 茶洞행, 왜적 곡식 침탈	山陰 왜적 진주행
46	10. 18.	茶洞에 도착	
47	10. 19.	흙집[土宇]을 지음	
48	10. 24.	조카와 遺墟로 돌아옴	
49	10. 25.	새벽 출발 茶洞에 도착, 全幼玉과 피난, 楊川행	달이 나온 후 도착
50	10. 26.	全幼玉과 蘆川에 도착, 물 달고, 토지 비옥, 양지	왜적 栢田 불, 약탈
51	10. 27.	경남 함양군 서상면과 전북 장수군 장계면, 克修	六十峴, 君望·姬望
52	11. 03.	茶洞, 孔子 陳나라, 西山 곤궁, 탄식, 엠티	兵使 鄭起龍 山陰행
53	11. 05.	茶洞으로 감	

정유재란기 정경운의 호남 체험과 그 의미(김종구)

54	11. 07.	옛터로 감	
55	11. 11.	大匡으로 감	
56	11. 12.	濟遠樓, 나라 타작, 鄭祥卿과 대화	
57	11. 15.	새벽, 茶洞에 도착, 養靜 旅糧 고향 향해 출발	
58	11. 16.	全幼玉과 달빛 의지 蘆川행, 松亭, 시 읊음	蘆川 옛 주인집
59	11. 17.	왜적 大荒峴 넘음, 全幼玉과 六十峴, 土民(친구)	개울가 천막, 비
60	11. 18.	바람, 비 그치지 않음, 蘆川, 盧參奉, 崔圭甫	임시 거처
61	11. 26.	全幼玉과 六十峴을 넘음, 網麓에서 쉬	
62	11. 27.	동틀 무렵, 薪麓에 도착, 文石文, 후하게 대접	權慄 單騎 서울행
63	11. 29.	網麓으로 돌아옴, 왜적(長水縣), 주막 쉬	한밤중 길 떠남 눈길
64	12. 02.	酢梨里 도착, 주인집, 후한 대접	朴希弘
65	12. 04.	炭洞	
66	12. 05.	全幼玉·崔圭甫와 薪麓에 도착	주인 영악, 냉방
67	12. 07.	網麓에 도착, 盧志夫와 대화	
68	12. 08.	茶洞에 가서 곡식을 신고 옴	
69	12. 14.	崔圭甫와 墨界寺로 가서 鄭僉知 만남	
70	12. 15.	六十峴을 넘어 網麓에 도착, 志夫 조문	
71	12. 16.	網麓에 머뭇, 적 무리 介坪과 池谷에 잠	
72	12. 19.	全幼玉과 高朴에 감, 조카는 薪麓으로 감	圭甫는 網麓에 머뭇
73	12. 20.	高朴에 머뭇, 呂應白이 찾아옴	咸陽에 왜적 머뭇
74	12. 22.	茶洞에 양식 구하러, 흙집에서 잠	趙季修·崔禮甫 등
75	12. 23.	大荒-水程津-오동재[梧岾]-蘆川-六十峴	茶洞 마을 불, 약탈
76	12. 24.	網麓에 도착, 薪麓에서 조카 만남	
77	12. 25.	木通-狐川-屈餉 마을 묵음, 왜적 長水 침입	達田 마을에서 총 쏘
78	12. 26.	龍潭縣內로 官家에 거처를 정함	
79	12. 27.	龍潭에 머뭇, 왜적 분탕질 남은 마을 쓸쓸	

80	12. 28.	永康 마을 양식 구걸, 처음 구걸, 高桂 春과 대화	피난 다닌 지 5개월
81	12. 29.	龍潭에 머뭇, 시 한수 읊음	
82	12. 30.	龍潭에 머뭇, 高彦邦과 대화, 쌀과 歲酒 줌	언방 해직, 守門將

위의 표는 정경운이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거주지인 함양으로 적군이 들이닥친다는 소문을 듣고, 호남으로 피난을 가는 여정이다. 위의 표를 분석하면 첫째, 정경운은 피난처를 구체적으로 탐방하고 의논을 하고 있었다. 호남으로 조카가 여러 번 방문하고, 곡식을 숨기는 등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盧志夫 · 盧景承 · 全幼玉 · 조카 등은 피난의 든든한 同類가 되고 있었다.

둘째, 깊은 산의 계곡과 암자 및 사찰을 이용해 호남으로 건너가고 있다. 개심사, 보국암, 백운산 · 장안산 기슭, 목계사, 酒谷 · 蜂谷, 영각사, 梧峴, 六十峴, 池谷, 梧岫 등을 경유하며, 왜적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옮겨 다녔다. 정경운은 적의 동태와 피난의 상황을 염탐하면서, 적을 맞닥뜨리기도 해서, 깊은 계곡 · 암자에 잠시 숨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병을 얻어 스님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셋째, 茶洞과 六十峴 등 피난 여정의 거점 지역이 있었다. 다동은 대황령(경남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²⁷⁾과 가까운 거리로 추론할 수 있다. 여기에 흙집을 지어, 곡식을 보관하기도 했다. 육십현은 경남 함양군 서상면과 전북 장수군 장계면의 경계이다. 여기 깊은 곳에서 천막을 치고, 다수의 피난민이 잠시 숨어 전란의 동태와 다음의 피난 여정을 도모하고 있었다.

정경운의 피난 여정은 왜군을 피해 도망 다녔기 때문에, 쉽게 한곳에

27) 『고대일록』 제2권, 丁酉, 1597년 10월 11일 戊辰 기록에, “나는 茶洞에 도착했다. 大荒 고개에 이르러 山陰 · 黃石 · 黑石 등지의 하늘에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모두 사방으로 도주하여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다.”(十一日 戊辰 余到茶洞 至大荒峴 見烟氣蔽天于 山陰黃石黑石等地 人皆四走填滿山谷)라고 한 기록으로 유추한다.

서 정착할 수 없었다. 그는 피난한 지 5개월이 지나야 주로 머문, 용담 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동을 중간 거점 지역으로 삼아, 고향으로 가 마을과 서원의 안위를 확인하기도 했지만 온전치 못했다. 그리고 六十峴은 깊은 골짜기로 인해 다수의 피난민이 천막을 치고 함께 숙식했다. 정경운은 여러 곳에 흠집을 지어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했다.

Ⅲ. 피난민으로서의 호남 체험

1. 위기의 삶과 궁핍한 일상

조선 선비의 일상적 삶에서도 질병과 죽음은 쉽게 헤쳐나가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황이 아니다. 정경운은 전쟁이라는 특수 체험을 하면서, 질병과 죽음은 더욱 힘들게 다가왔을 것이다. 피난민으로서의 위기의 삶으로 그는 질병과 죽음이 더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나머지 가족과 형수 가족을 챙겨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한다. 이러한 피난민의 삶은 왜군이라는 적, 현실의 위기의 삶, 궁핍한 일상과 싸움해야 하는 실정이 된다.

(가) 丁酉(1597) 〇8월 27일 乙酉

말을 끌고 길로 나와 중간 역마을을 지나가는데, 저물녘에 갑자기 복통이 와서 황혼녘에 墨界寺로 가 머물렀다. 스님의 救護가 밤새도록 이어졌지만, 몸을 屈伸할 수 없었고 小便조차도 볼 수 없었으니, 疝症과 비슷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다행히 살아났다.²⁸⁾

(나) 丁酉(1597) 〇9월 08일 丙申

궁벽한 산에 뼈를 묻은 지 20일이 넘었으니, 외로운 혼백이 떠돌아다니며 어느

28) 『고대일록』 제2권, 「丁酉(1597), 秋八月」, “二十七日 乙酉 余牽馬 而來路由中站 日暮卒得腹痛 黃昏投墨界寺 僧救護備至達夜牽引 不能屈伸 小便不通 有似疝症 幾至死域幸 而得甦.”

곳에 의탁했을까? 시체를 어루만지며 통곡하다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나무 꺾질로 관을 만든다는 말이 과연 거짓이 아니었다. 해가 저물어 墨界로 돌아왔다.²⁹⁾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는 비명횡사, 즉 원치 않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큰 것일 것이다. 정경운은 피난민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가)는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다. 그가 피난하는 가운데 병이 나, 스님의 보호를 받는 장면이다.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소변조차 편히 볼 수 없었으니, 죽다가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의 다른 기록에도 자신의 질병에 관한 기록이 다수 나오고 있다.

(나)는 자신의 죽음이 아닌 자식의 죽음이다. 정유재란이 발병해 피난을 가다가 딸아이가 도록을 당하기 싫어 패도로 자결한 것이다. 정경운은 겨우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을 하고 간단하게 상례를 행하였다. 더욱이 왜적이 침탈하면 패도로 자결하라고 권고한 것은 아버지인 정경운이었다. 그는 통곡하며 기절을 했고, 다시 깨어나 슬퍼하고 있었다. 딸아이가 비명횡사가 된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그의 삶은 위기가 닥친 것이다. 즉 더이상 살고 싶은 욕망이 없는 것이다. 다음의 자료를 좀 더 살펴보자.

(가) 丁酉(1597) ○12월 23일 己卯

바야흐로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파고 있는데, 흉적이 바로 大荒 고개를 넘어오기에 곡식을 버리고 지름길을 통해 水程津으로 돌아왔다. 적이 쳐들어 올 것을 생각하여 말을 계곡에다 숨기고, 나는 종 億이와 함께 산중턱으로 들어갔다. 잠깐 동안에 적의 무리 열 몇 놈이 오동재[梧岾] 길로 급히 오고, 또 적 세 놈이 나를 뒤따라 이르니, 황급히 도망하여 눈 속에 숨어 하루 종일 마음을 졸였다.³⁰⁾

29) 『고대일록』 제2권, 「丁酉(1597), 秋九月」, “八日 丙申 嶺山已踰二旬 孤魂漂泊何所依托乎 撫屍痛哭絕 而復甦 所謂木皮爲棺信不虛矣 日暮還墨界.”

30) 『고대일록』 제2권, 「丁酉(1597), 冬十二月」, “二十三日 己卯 方掘藏穀之處 兇賊直逾大荒岾 棄而徑歸到半程津 慮賊突入藏馬于溪谷 余與億奴投中山 俄頃賊徒十餘人急來于梧岾之路 又賊三人躡我而至 蒼黃走匿潛伏雪中終日煎慮自.”

(나) 戊戌(1598) ○06월 27일 庚辰

점심때 寓舍에 도착해서 周復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통곡하며 죽고 싶었다. 오 호라! 내가 사십을 넘겨 겨우 아들 하나를 두었다. 결국 그의 요절함을 보니, 운명의 奇薄함이 어찌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亂離통에 옷과 음식을 주지 못했다. 아들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의 배를 굶기고, 그 몸에 옷을 입히지 못하여 병을 얻어 죽게 했으니, 내가 차마 너를 묻지 못하겠다.³¹⁾

(가)는 정경운이 몰래 저장해 둔 곡식을 찾으러 갔다가, 왜적을 만난 장면이다. 궁핍한 생활을 해결해 줄 곡식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孤軍奮鬪하는 모습이다. 그는 이때 적의 모습을 분명하게 처음 보았다. 하루 종일 눈 속에 숨어, 왜적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린 것이다. 당시 茶洞과 雨落村 · 梧岡 · 餘件大 등의 마을을 불 지르고 약탈했지만, 정경운의 피난처는 약탈을 면해, 안도하고 있었다. 한심한 건 백 명의 왜적이 말과 무기가 없이, 짧은 칼만 차고 저지른 만행이기에, 정경운은 더욱 통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살기 위해 도망했고, 二更 쯤에 蘆川으로 돌아와 짐을 꾸려 六十峴을 넘고 있었다.

(나)는 정유재란으로 딸 아이가 죽은 지 1년도 채 못되어, 돌림병으로 그의 아들(1593년 03월 28일 生)마저 죽게 된 사실이다. 정경운은 늦은 나이에 아들 하나를 얻었지만, 요절을 한 것이다. 아들은 전쟁으로 인한 돌림병을 얻어, 집에서 약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타향인 피난처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경운은 자책하며 자신 또한 죽고 싶었던 것이다. 겨우 곡을 하며 밥을 떠 놓고 한 번 곡하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다.

임란 이전, 정경운의 삶과 주변 친인척의 죽음 역시 평범하지 않았다. 즉 早死하는 경우가 많았다. 2세(1557)에 부친이 사망하고 외조부 밑에서 성장하고, 9세(1564)에 외조부도 사망하게 된다. 모친과 외조모가 돌보지만 13세(1568)에 모친도 사망하게 된다. 이후 형에게 수탁하고 외조

31)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夏六月」, “二十七日 庚辰 午時到寓舍 聞周復死 奇痛哭欲絕 嗚呼 余年過四十始 有一子 而又見夭折 命途奇薄 一至此哉 亂離之日 衣食不給 只有一兒 而飢其腹赤 其體得病 而死 余不得埋焉.”

모 슬하에서 성장한다. 하지만 외조모도 15세(1570)에 사망하여, 형과 형수를 부모처럼 의지한다. 19세(1574)에 형조차 사망함에, 형수를 어머니처럼 여기며 산다. 이처럼 정경운의 어린 시절과 성장기는 죽음의 슬픔과 그 고통이 빈번했다. 25세(1580)에 결혼을 하고, 37세(1592)에 임란이 발발해 김성일의 소모유사, 김면의 소모종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처럼 정경운의 친인척과 자식의 죽음은 불운했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와 그 자신조차 이 땅에 살기를 싫어했다. 죽어서도 不慈不孝했기 때문에 구천에서 만날 수 없다고 했다. 더욱이 정유재란 시기에 아들과 딸을 잃었기에, 그의 피난 생활을 지탱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나머지 식솔과 가정을 챙기기 위해 更生의 삶을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가) 丁酉(1597) 〇2월 28일 己丑
막내딸이 병이 나서 고통스러워했다.³²⁾

(나) 丁酉(1597) 〇4월 14일 甲戌
새벽에 갑자기 기침이 나서 허리와 등골이 찌르는 듯 아팠다. 腹痛이 심하게 일어나 붉은 설사가 자주 났다. 종일 괴롭기 그지없었다.³³⁾

(다) 丁酉(1597) 〇4월 15일 乙亥
내 病이 차도가 없어 하루 종일 신음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야 조금 차도가 있었다.³⁴⁾

피난민의 생활 중에 힘든 것은 배고프고 추운 것일 수 있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전쟁으로 인한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궁핍한 생활로 인한 질병의 발생이다. (가)는 정경운의 딸 아이가 병이 나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다. (나)와 (다)처럼 자신의 질병의 고통보다, 딸 아이의 병이 더

32) 『고대일록』 제2권, 「丁酉(1597), 春二月」, “二十八日 己丑 季女 得病苦痛.”

33) 『고대일록』 제2권, 「丁酉(1597), 夏四月」, “十四日 甲戌 黎明忽然咳嗽腰脊刺痛 腹痛劇作 赤痢數數 終日苦極.”

34) 『고대일록』 제2권, 「丁酉(1597), 夏四月」, “十五日 乙亥 余病不減 竟日呻吟 至日晡少差.”

옥 가슴 아플 것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아들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었으니, 짧은 기록이지만 딸아이의 질병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정경운은 궁핍한 생활과 전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잦은 이동을 하게 된다. 적군에게 내몰려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동하며, 가장으로서 노력을 지대하게 하고 있었다. (나)와 (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병이 난 경우를 기술하고 있었다. 산증·감기 몸살·복통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구체적인 병명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그는 “1597년 12월 05일 辛酉: 나는 全幼玉·崔圭甫와 함께 길을 떠나 薪麓에 이르렀다. 주인의 姓은 宋氏인데, 이름은 잊었다. 그는 영악하기 그지없어 나를 冷房에다 목게 했다. 한밤중에 병이 발작하여 頭痛과 身熱이 났다. 이것은 얇은 옷을 입고 추위를 무릅쓰다가 차가운 바람에 상한 것이니, ‘의복과 갈옷도 없이 어떻게 한 해를 넘기겠는가?’³⁵⁾라는 말이다.”라고 한 기록처럼, 이동하면서 질병과 전염병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1598년 4월 17일부터 3일 동안은 아예 앓아누운 것만 서술하고 있다. 설사·복통·두통·장과 위의 고통³⁶⁾으로 寓舍에 누워, 여전한 병세와 조금의 차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함께 이동하거나, 피난한 사람들의 질병까지 기술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가) 戊戌(1598) 〇1월 21일 丁未

조카의 노비가 여러 날 아파서 밖에다 천막을 쳤다. 조카와 형수씨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타향으로 흘러들어 의탁했는데, 병까지 들었다 하니 근심과 걱정이 어떠하겠는가?³⁷⁾

35) 『詩經』 「爾風」 ‘七月’, “無衣無褐 何以卒歲 一之日臈發 二之日栗烈 七月流火 九月授衣 七月流火 九月授衣 一之日臈發 二之日栗烈 無衣無褐 何以卒歲.” 참조.

36) 05월 13일 丁酉, 05월 14일 戊戌의 기록에서도 복통으로 인해 밤새도록 고통스러워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 이 당시, 具天賚·全幼玉 등 많은 사람이 행차한 석성의 모임, 施大寺의 모임에 불참할 정도니,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 수 있다.

(나) 戊戌(1598) 〇05월 01일 乙酉

益山에 도착한 10여 일 후에 병을 얻어 고통을 당했다. 내가 문병을 갔다. 하루를 걸러 또다시 가서 문병했는데, 傷寒으로 땀이 비 오듯 했지만, 두통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하루를 걸러 다시 가서 보니, 말이 잘되지 않아 무슨 말을 하는지 분별할 수가 없었다. 손을 잡고는 가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다.³⁸⁾

정경운의 조카는 그와 함께 가족의 식솔을 챙기며, 힘든 피난 생활을 헤쳐나가고 있었다. 엄밀히 정경운이가 어머니 같은 형수와 조카를 챙기고 있지만, 조카 역시 정경운의 수족이 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가)에서 그러한 조카와 형수, 노비까지 아파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근심과 걱정이 큰 것이다. 1598년 08월 02일 乙卯의 기록에서도 이틀거리 병[唐瘡]에 걸려, 안타까워하고 있다. 唐瘡은 학질의 하나로 이틀을 걸러서 발작해, 좀처럼 낫지 않는 고약한 질병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노지부의 질병과 죽음에 그의 피난 생활의 큰 위기로 다가온다. 평소 그는 노지부와 절친한 벗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나)는 1598년 05월 01일의 기록인데, 노지부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해 04월 20일 기록에서는, “志夫를 문병했다. 그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 손을 잡고 진맥해보았다. 손이 차고 두통이 있는데, 전염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더욱이 전염병으로 인해 부모보다 먼저 요절한 상황에 충격을 받고 있었다. 노지부의 부음 소식을 위기의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이동 중, 곰재[熊峴]에서 아침을 먹고, 오후 4시쯤 [晡時] 蘇陽을 넘다가 듣게 된다. 피난민이 아니었다면 가까이에서 임종을 지켜볼 수 있었던 각별한 사이였다. 게다가 한 해 전, 景實과 士古를 잃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의 참혹함과 전염병으로 인한 피난민의 고통 및 벗의 죽음까지 체험하고 있었다.

37)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春王正月」, “猶子奴婢苦痛 累日結幕于外 猶子嫂氏又移他處流寓他鄉 病患亦侵憂悵 如何.”

38)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夏五月」, “到益山 十餘日後得疾苦痛 余往問疾 間一日又往問自 以爲傷寒發汗如流 頭痛不甚 又間日視之 則語涉不能辨 執手憫嘿而歸念.”

정경운은 1598년 05월 11일 乙未의 기록에 “하인이 병이 나서 해질 녘에 돌아왔다.”라고 했고, 1598년 06월 28일 辛巳의 기록에서는 “黃雲老와 林景珍이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具天齋는 병이 위중하여 오지 못했다.”³⁹⁾라고 했다. 전쟁으로 인한 전염병과 궁핍한 생활로 인해, 주변의 수많은 사람이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가) 丁酉(1597) ○12월 28일 甲申

永康 마을에서 양식을 구걸하였다. 縣의 사람인 高桂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高는 龍潭에서 학식이 남달리 뛰어난 인물로서 글도 잘하고 말도 잘했다. ○ 피란하러 바쁘게 돌아다니던 지가 이제 5개월째인데, 생계가 다급하여 처음으로 구걸하였으니, 나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⁴⁰⁾

(나) 戊戌(1598) ○04월 10일 甲子

志夫를 만났고, 시장에서 양식을 구걸했다. 두꺼운 얼굴이 부끄러워 마치 시장판에서 매를 맞는 것 같으니, 곤궁함에 마음이 상하는구나!⁴¹⁾

(가)는 1597년 12월 28일의 기록이다. 정경운이 피난 생활을 한 지 5개월이 지난 뒤의 기록이다. 함양과 호남의 경계에서 노숙하거나, 호남으로 들어와 피난처를 옮겨 다니며,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이때는 더이상 버틸 양식이 없어, 영강 마을에서 양식을 구걸하는 장면이다. 정경운에게 지탱할 수 없는 궁핍한 일상이 가까이 도래한 것이다. (나)의 기록은 다음 해 04월 10일의 기록이다. 그가 마을이 아닌 시장에서 양식을 구걸하니, 선비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견디지 못한 일임을 알 수 있다. 시장판에서 매를 맞는 것은 신분이 낮은 이가 죄를 지어 곤욕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정경운은 그러한 시선을 받으며, 위기의 삶을 살아

39)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夏六月」, “黃雲老 林景珍 來會對話 具天齋 病重不出.”

40) 『고대일록』 제2권, 「丁酉(1597), 冬十二月」, “二十八日 甲申 乞糧于永康村 與縣人高桂春暫話 高也龍潭之巨擘 能文善談 ○避亂奔走于今五月 計急始乞 我懷如何.”

41)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夏四月」, “十日 甲子 與志夫相見 乞糧于市 顏厚有忸怩若撻于市 傷哉窮也.”

가고 있었다.

정경운은 1597년 피난을 떠나기 전, 패전한 우리의 군사가 마을로 들어와 구걸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다. 즉, 그는 “7월 19일 戊申: 나는 士古와 함께 그의 집에 도착했는데, 패배하여 도망쳐 온 나머지 군사들이 벌거벗은 몸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마을에서 양식을 구걸하고 있는 이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고, 차마 보기가 어려웠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때만 하더라도 그가 패전한 군사처럼 될지는 짐작 못 했다. 정경운은 패전병의 모습과 구걸하는 그들의 말을 눈과 귀로 직접 체험하며, 차마 볼 수 없는 처참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그가 바로 패전병의 모습과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 위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경운은 전쟁의 전염병으로 늦게 태어난 아들을 피난처에서 잃게 된다. 정유재란 피난 시기에는 딸 아이를 잃는 불행을 겪게 된다. 그의 절친한 벗들이 피난처에서 죽었고, 그 역시 죽고 싶었으나, 나머지 가족과 식솔을 챙겨야 했기에 다시 일어서게 된다. 하지만, 피난민으로서의 정경운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마을, 시장에 가서 구걸까지 하는 설움을 참아야만 했다. 그의 호남에서 피난 체험은 삶의 위기로 다가와 궁핍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다.

2. 淸土에서 農 · 商人으로 전략

피난민의 정경운은 위기의 삶과 궁핍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한 모색을 하게 된다. 소금을 싸게 매입해 다시 매도하는 것이다. 가족과 식솔이 모두 굶어 죽는 상황에 놓인 상황에, 그는 선비에서 일시적으로 소금 장수으로 전략하여, 삶의 지속을 모색하게 된다. 어찌 보면 비전문가인 보부상, 장돌뱅이, 장사꾼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의 신분은 선비이었고, 장사꾼은 아니다. 하지만 피난민인 그는 일시적으로 살기 위해 商人, 즉 장사꾼과 직접 농사를 짓는 農人이 되어 가고 있었다.

〈 표 2 〉 淸士에서 商人으로 전락한 내용 및 場市 활동

순번	날짜	내용	비고
1	01. 09.	1598(戊戌), 씨락논, 조카가 錦山場에 감	錦山場
2	03. 29.	益山 저자에 가서 소금을 바꿈, 幼玉이 나무를 빌려줌	나무-소금
3	04. 10.	志夫 만남, 시장에서 양식 구걸	구걸
4	04. 15.	場市를 봄, 오후에 비	
5	04. 24.	오후 天峯에 도착 노숙, 場市를 보고자 했기 때문	翼承과 대화
6	05. 23.	全幼玉·具天賚·李貞甫와 咸悅장에 감, 길에서 소나기	저녁 도착, 실패
7	05. 24.	全幼玉·조카 등과 龍安 나루터 약간 소금 매입 실패	해 질 때 寓舍
8	05. 28.	임경명, 임경현과 咸悅장, 콩을 사음	
9	06. 03.	새벽 비, 조카와 咸悅장 소금 매입 시도, 비싸서 실패	
10	06. 08.	具天賚와 咸悅장, 한 움큼 소금 매입	
11	07. 05.	益山장, 한 되[升]도 사지 못하고 돌아옴	
12	07. 06.	李貞甫와 高山장,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옴	
13	07. 13.	李貞甫와 소금을 싣고 錦山행, 柳君見 집 목음, 대화	
14	07. 15.	점심 때 시장터 도착, 북통으로 龍潭행, 草峴 마을 목음	태조 胎陵 謁見
15	07. 19.	龍潭縣에 도착, 사람 거처하는 곳 방문 소금 판	高得良 집 목음
16	07. 21.	소금 다 팔았는데 일곱 말 되지 않음, 雁南 마을 목음	高桂春·李都將
17	07. 25.	益山장, 盧汝任과 대화, 趙敬由 만나지 못함	
18	07. 28.	咸悅장, 배 반 필 판, 식량 바닥, 대책 없음	생계 걱정
19	08. 08.	고을 장[州市], 소를 사려 했으나 실패, 물고기 못 잡음	川邊에 목음
20	08. 26.	丁參奉·조카와 利城장, 春浦 마을 앞 길가 목음	李貞甫 동행
21	08. 27.	꼭두새벽 출발, 배, 石灘浦, 장을 봄, 저녁 臨陂 마을	
22	09. 10.	全幼玉·조카·李貞甫가 長수로 감, 長溪장을 보기 위함	
23	09. 13.	새벽, 추위, 夜頭 개울가 아침, 점심때 帝闕장 들어감	李公僉·崔廷俊

24	09. 23.	丁參奉과 威悅장,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옴	
25	09. 30.	威悅, 臨陂장 나무를 판	
26	10. 01.	威悅 李君 집, 물고기를 사고자 함, 濟州羅州의 장사꾼	값, 실패
27	10. 12.	소금 마련 못함, 洪壽之 집 머뭇	
28	10. 17.	全幼玉·조카, 載雲 소금 매입 실패, 龍安 雲浦 소금 매입	二更쯤 寓幕
29	11. 05.	장에 가서 趙敬由를 만남	
30	11. 20.	장에 가서 盧汝任과 대화	

위의 표는 1597년 정유재란 발발 이후, 정경운이 장시 활동을 한 것을 도표화했다. 소금 장수가 된 것과 싸게 물건을 구입해서 되파는 장시 활동을 도표화했다. 그리고 구체적 물품 매입과 매도한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시장에 가서 교유·활동한 것도 도표화했다. 정경운과 그의 同類는 피난 생활을 하면서, 시장이 주요한 활동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표를 분석하면 첫째, 소금 장수(장사꾼)로서의 정경운이다. 소금과 관련된 기록은 1598년 03월 29일, 05월 24일, 06월 03일, 06월 08일, 07월 13일, 07월 19일, 07월 21일, 10월 12일, 10월 17일 등이 있다. 정경운은 소금 장사꾼·장돌뱅이·보부상 등의 신분으로, 일시적 전략되고 있었다. 정유재란 이후에도 1599년 05월 29일에는 소금이 없어서 탄식하고 있었고, 1599년 10월 30일에는 전라 수사가 소금을 부쳐준 기록도 있다. 1601년 09월 16일에는 소금⁴²⁾을 갖고 가는 노비와 말을 보내고 있다. 정유재란 이후에는 직접 소금을 매입, 매도하는 장사꾼의 전면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둘째, 소금 장수 이외의 장시 활동이다. 우선 물건을 판 경우이다. 이는 직접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거나,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싸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다시 되파는 경우도 있다. 직접 물건을 가지고 판 경우는, 07월 28일에 양식이 없어, 배를 팔고자 威悅장에 간 것이다. 선비로

42) 정우라(『『고대일록』에 나타난 서술의식과 위기의 일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2009, 157~188쪽. 참조.)은 이미 소금과 관련 기록을 도표화하고 있다. 본 논의에서 상세한 기록, 그 외의 장시 활동을 추가하여 도표화했다.

서 신분을 상징하는 중요한 옷감보다, 당장의 끼니가 중요했다. 09월 30일에는 咸悅, 臨陂장에 가서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자 했다.

다음으로 그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장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필요한 물품을 사고자 직접 시장에 간 경우이다. 04월 15일 · 24일, 08월 27일은 場市를 보고자 했고, 05월 28일은 콩을 구입하여 다시 되팔 것인지, 생계 또는 농사 등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상세하지 않다. 08월 08일은 소를 사려 했으나 그러하지 못했다. 농사를 짓기 위해 그런 것 같으나, 상세한 기록은 없다. 10월 01일은 咸悅 李君의 집에 기거하며, 濟州 · 羅州의 장사꾼에게 물고기를 사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아마 직접 먹거나, 다시 되팔고자 한 것이다. 07월 06은 李貞甫와 高山장, 09월 23일은 丁參奉과 咸悅장에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다.

셋째, 同類와 함께 시장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전에는 서원이나, 서당에 가서 하루의 일과를 보냈는데,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피난민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정경운은 시장에 자주 왕래하고 있었다.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생계를 이어 가기 위한 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는 많은 시간을 시장에서 보내고 있었다. 01월 09일은 조카를 보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04월 10일은 비참하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갔다. 그 외 05월 23일, 07월 25일, 08월 26일, 09월 10일 · 13일, 11월 05 · 20일은 장사를 위해 이동 중이었거나, 아무런 목적 없이 시장을 방문하고 있었다.

(가) 戊戌(1598) 09월 13일 乙未

새벽바람이 하늘에 부니 추위를 참을 수 없었다. 夜頭 개울가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때 帝闕 장에 들어갔다. 李公僞 · 崔廷俊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가 저물어 張天覺의 집에서 묵었다.⁴³⁾

(나) 戊戌(1598) 04월 24일 戊寅

43)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秋九月」, “十三日 乙未 曉風吹空寒不可忍 朝飭于夜頭溪 午投帝闕市 與李公僞 崔廷俊 相話 暮投張天覺之家.”

해 뜰 무렵에 翼承을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후에 天峯에 도착해서 노숙했는데, 場市를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⁴⁴⁾

(다) 戊戌(1598) 〇07월 13일 丙申

李貞甫와 소금을 싣고 錦山으로 향했다. 저녁에는 進士 柳君見의 집에 묵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⁴⁵⁾

정경운은 소금 장수를 하기 위해 항상 꼭두새벽에 일어나 이동을 하고 있었다. (가)는 새벽에 일어나 개울가에서 아침을 먹었으며, 점심때 帝闕장에 들어가게 된다. 추위와 배고픔을 참고 이동을 하지만, 별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나) 역시 일찍 서둘러 이동을 했지만, 오후에서야 天峯에 도착해 노숙하며 장시를 보고 있었다. (다)는 李貞甫와 함께 소금을 싣고, 호남에서는 먼 거리인 錦山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08월 27일 庚辰의 기록에서도, “꼭두새벽에 출발했다. 아침에 배를 타고 石灘浦를 건넜다. 장을 본 후에 저녁에는 臨陂 마을 집에서 묵었다.”라고 했다. 배를 타거나, 노숙하기도 한다. 겨우 장시 활동을 하고 마을로 들어가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보부상이 장 서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정경운 역시 그러한 이동을 했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가) 戊戌(1598) 〇07월 06일 己丑

李貞甫와 高山장에 갔다.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으니, 한스럽다. 〇 趙敬由와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⁴⁶⁾

(나) 戊戌(1598) 〇07월 14일 丁酉

오후에 排峴을 넘었다. 산길이 매우 험했다. 저녁에는 珍山郡 안의 村舍에서 묵었다.⁴⁷⁾

44)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夏四月」, “二十四日 戊寅 平明見翼承打話 移時午後到天峯露宿 欲見場市故也.”

45)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秋七月」, “十三日 丙申 余與李貞甫 載鹽向錦山 夕宿于柳上舍君見家 打話.”

46)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秋七月」, “六日 己丑 余與李貞甫 往高山市 空往空來 可恨 〇與趙敬由 相話”

(다) 戊戌(1598) 07월 15일 戊戌

새벽에 동쪽으로 가서 태조의 胎陵을 謁見했다. 산천이 拱揖하는 빼어난 陰宅이다. 나는 복통을 일으켜 몇 번이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점심때 시장터에 도착했다. 장보는 사람이 적어 불리할 것 같아서 영동으로 가고자 했는데 복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되돌아 龍潭으로 향했다. 저녁에 草峴 마을에 묵었다.⁴⁸⁾

(가)처럼,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정경운의 장시 활동은 그의 가족과 식솔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어서 험한 산길인 배현을 넘고 있었다. 이러한 일정의 무리와 험한 여정은 복통 등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다. 여기서 그는 더 이상의 장시 활동은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정경운이 당시의 피난처인 용담으로 돌아가고자,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장면이다.

정경운이 원래의 장사꾼이었다면, 굳이 태조의 태릉에 알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다)의 기술은 원래 정경운이 선비이었던 점을 상기시켜 준다. 하지만, 그의 피난민의 신분은 소금 장사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만들었다. 질병까지 발생했으니, 전쟁 피난민의 고단함과 전염병의 노출 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먼 거리인 금산으로 가면서 일어난 일이기에, 그가 처한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가) 戊戌(1598) 07월 04일 丁亥

메밀을 경작했다.⁴⁹⁾

(나) 戊戌(1598) 07월 24일 丁未

蘇道淵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메밀밭을 갈았다.⁵⁰⁾

47)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秋七月」, “十四日 丁酉 午逾排峴 山路極險 夕宿于珍山郡內村舍.”

48)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秋七月」, “十五日 戊戌 曉發東去 見太祖胎陵 山川拱揖眞明堂也 余患腹痛幾至死域 午到市場 人少不利欲向永同 而腹痛轉急 回向龍潭 夕投于草峴村.”

49)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秋七月」, “四日 丁亥 耕木麥.”

50)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秋七月」, “二十四日 丁未 與蘇道淵 暫話 ○耘木麥田.”

(다) 戊戌(1598) ○07월 30일 癸丑

主簿 蘇潤源과 그 아들 昕·上舍 蘇道淵·具天賚·林景珍·全幼玉·蘇仲益 등 십여 명과 더불어 全州의 개울가에서 고기를 잡았다. 가을비가 몹시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 好事多魔라는 말이 이런 것인가 보다.⁵¹⁾

(라) 戊戌(1598) ○10월 03일 乙卯

메밀을 타작했다. 단지 10여 말 정도인데, 너무 적어 부끄럽다.⁵²⁾

1597년 04월 01일의 기록에는 “마침내 올벼를 과종하였다. 대체로 사람의 마음이 농사짓는 일에 게을러졌다. 賦役하는 여가에 경작할 뜻이 없으니, 내년의 굶주림을 점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평소 정경운은 부역이나 하인 등에게 농사를 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비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정유재란이 일어나, 호남으로 피난 갔을 때는 예외가 되어 버렸다.

(가)와 (나)는 피난 생활을 하면서 메밀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결과 (라)처럼, 겨우 10여 말 정도 메밀 수확량이 적어, 매우 부끄러워하며 자신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는 同類 10여 명과 고기를 잡는 모습이다. 피난 생활에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고기를 잡는 모습이다. 선비로서의 정경운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농업인으로 전락하게 된 정경운을 확인할 수 있다.

정유재란 발병 이전 정경운은 남계서원의 유사로서 서원의 업무와 일을 하고 있었다. 조용히 앉아 ‘靜’의 마음의 상태를 유지했고, 선비로서 학문과 강학에도 열정적이었다. 때로는 벗들과 풍류를 즐기며 교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난민이 된 정경운은 일시적으로 농·상인이 되어야만 했다. 위기와 궁핍한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소금 장수로 전락한 것이다. 주변의 장사와 마을을 찾아다니며 소금을 팔고 있었다. 직접 메

51)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秋七月」, “三十日 癸丑 與蘇主簿潤源 及子昕 蘇上舍道淵 及具天賚 林景珍 全幼玉 蘇仲益 等十餘人 漁于全州溪邊 秋雨霏霏魚不能捕 所謂好事多魔者也.”

52)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冬十月」, “三日 乙卯 打木麥 只是十餘斗畧畧 可愧.”

일을 경작하며, 갱생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미미했다.

3. 피난민의 참혹한 心狀과 극복

피난민은 전쟁으로 인한 전염병 및 질병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정경운은 혼자가 아닌 가족과 식솔을 챙기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여기서는 정경운 개인의 心狀을 살펴보고자 한다. 피난민의 신분으로 미리 짐작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경운만의 극복 방법과 그 노력 또한 중요하다. 일상을 잘 분석해, 선비 정경운의 위기 대처와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바로 그의 선비정신 실천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가) 戊戌(1598) 〇01월 29일 乙卯

오늘은 모친의 제삿날이다. 하지만 단지 피 밥 한 그릇만 올리고 곡을 하니, 눈물만 흐를 뿐이다. 비통한 심정에 자신도 모르게 곧바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오후에 丁公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⁵³⁾

(나) 戊戌(1598) 〇05월 15일 己亥

오늘은 바로 할아버지 제삿날인데, 사촌형이 祭需를 진설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나 또한 양식과 돈이 다 떨어져 祭物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⁵⁴⁾

정경운은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제사를 생각하고 있었다. 피난을 떠나면서도 조상의 신주와 서원의 신위를 땅에 제일 먼저 묻고 떠나고 있었으며, 중간에 안전한가를 확인하러 왜적을 피해 함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피난 생활 이후에도 서원과 관련된 일과 제사는 정성껏 모시는 장면

53)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春王正月」, “廿九日 乙卯 是日先妣諱辰 而只設飯一器 涕泣 而已悲痛之情 直欲無生 而不覺也 午後 與丁公 相話.”

54)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夏五月」, “十五日 己亥 是日 乃王父諱辰 而未知堂兄設祭與否 余亦囊橐告竭 不克備物 悲慘何極.”

이 기술되어 있다. 선비로서의 당연하고 지극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처럼, 피난 와중에 행해진 모친의 제사는 밥 한 그릇만 올리고 곡을 하니, 그의 想念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 것이다. 이러한 비참한 심정은 또다시 죽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였다. (나)는 할아버지의 제사와 관련된 진술인데, 모친에 비하면 그 슬픔이 덜하다. 그는 양식과 제물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피난민 신분에 더 비참해하고 있다. 이처럼 전쟁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제사를, 전쟁·피난 와중에 지내는 그 想念은 참혹하다. 다음의 자료를 좀 더 살펴보자.

戊戌(1598) ○08월 18일 辛未

밥을 먹은 후 길에 올랐다. 비가 물을 붓는 듯이 와서 옷이 흠뻑 젖었다. 末峴을 넘는데 길에서 姜忠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저녁에는 樊原驛에서 묵었다. ○오늘은 죽은 딸의 첫 忌日이다. 하지만 내가 먹고사는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몸소 보잘것없는 奠物이나마 차리고 紙榜을 만들어 통곡하지 못하고서 바삐 길을 다니다가, 驛館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 슬프도다.⁵⁵⁾

위의 글은 바로 딸의 첫 기일의 상황이다. 그 전 08월 17일 기록을 보면, 정경운은 이동하며, 오원역의 임시로 지은 집에 묵었고, 다음 날 기록인 8월 19일에는 남원 향교 앞의 마을에 묵었다. 그는 피난처에서 삶을 지탱하기 위해 계속 이동하고 있었다. 딸의 기일조차 피난처의 정해진 숙소에서 거처할 수 없었다. 더욱이 딸의 기일에도 이동하며, 살 궁리를 생각해야되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참으로 비참한 想念이 들었다.

즉, 자신이 먹고살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딸의 제사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심정, 그리고 통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더욱 울분을 토하고 있었다. 피난민 정경운의 마음은 전쟁뿐만 아니라,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불우로 인해 더욱 슬프게 표현되고 있다. 이동 중의 驛館에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피난민 정경운은 죽지 못해 살아가

55)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秋八月」, “十八日 辛未 食後登途 雨下如注衣服盡濕 逾末峴 路逢姜忠 暫話夕 宿樊原驛 ○是日 乃亡女初忌 而余以衣食之故 不得親奠 薄物裁紙痛哭 奔走路上揮 涕於驛館 嗚呼哀哉.”

야 했고, 나머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가) 戊戌(1598) 〇03월 28일 癸丑

玉包에 머물렀다. 갖고 다니던 양식이 또 불타버렸다. 陳나라에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했던 孔子의 탄식⁵⁶⁾처럼, 인생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니, 불쌍하기 짝이 없었다.⁵⁷⁾

(나) 戊戌(1598) 〇06월 13일 丙寅

양식이 떨어져 郡內로 갔다. 主簿 蘇潤源과 進士 金廷益을 찾아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보리를 얻어 왔다. 〇이날 밤중에 호랑이가 개를 물어가서 온 집안이 놀랐다. 그 개는 피난 올 때 끌고 왔는데, 이렇게 잃어버렸으니, 한탄스럽다.⁵⁸⁾

(다) 戊戌(1598) 〇06월 05일 戊午

나는 益山郡守를 뵈러 갔다. 그를 만나서 후한 대접을 받았다. 지붕을 덮을 재료를 주었고, 양식과 筆墨도 보태주었다. 그의 동생과 아들을 나오게 해서 만났다. 蕭寺의 만남을 기억하고, 해질녘에 寓舍로 돌아왔다.⁵⁹⁾

피난민이 양식이 풍부하기란 쉽지 않다. (가)는 남은 양식이 불타버렸다. 주변의 부주의로 불탄 경우도 있고, 왜적을 피해 도망 다녔다가 왜적의 약탈로 인해 불탄 경우도 있었다. 정경운은 공자의 在陳之歎을 여

56) 『논어』 「公治長」 에,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노나라에 있는 내 제자들이 광간하여, 文理 성취는 볼만해도 中道로 마름질할 줄을 모른다.”(歸與歸與 吾黨之小子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라고 했다. 그리고 공자가 列國을 주유하다가 陳에서 식량이 떨어지고, 시종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정경운은 이를 용사한 것이다.

57)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春三月」, “二十八日 癸丑 留玉包 行糧亦燒 在陳之歎孔極人生至此 可憐.”

58)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夏六月」, “十三日 丙寅 余以絕糧往郡內 見蘇主簿潤源 金進士廷益 談話 移時得麥而來 〇是夜半 虎子持狗而去 舉室驚駭 狗子避亂之日 牽來至此失之 可歎.”

59)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夏六月」, “五日 戊午 余見益山 倅遇之甚厚與 以蓋屋之具加之 以糧米筆墨 出其弟與子而見之 期以蕭寺之會 日暮歸寓舍.”

러 번 인용하며, 자신의 불우한 참혹한 心狀을 대변하고 있었다. 공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후진을 양성할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경운은 왜적으로 인해 고향조차 돌아갈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불우한 삶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想念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모습으로 환치된다. 즉 전쟁 피난민으로서의 신분을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앞서 제시된 소금 장수가 그러했고, 여기서 제시하는 (나)와 (다)처럼 주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나)는 피난처 군내에 교류하던 인물에게 양식을 빌리는 것이고, (다)는 익산 군수에게 양식을 융통하는 장면이다. 전쟁 이후에 다시 갚을 수 있는 형편이지만, 그의 心狀은 편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나)처럼 호랑이가 집안의 개를 물어간 것은, 전쟁으로 인한 왜적이 우리를 도륙하는 장면이 연상되고, 개조차 잃어버렸으니 자신의 불우한 처지가 더욱 한탄스러운 것이다.

(가) 戊戌(1598) 〇09월 09일 辛卯

具天賚·黃雲老·林景珍·蘇道淵·崔子昂이 각기 술 한 병씩을 들고 와서 정자에서 만났다. 上舍[상사는 생원도 포함한다.] 蘇仲綏·吳彥一·蘇仲益·鄭夢說 등도 같이 모여 대단히 즐겁게 논 다음에 헤어졌다.⁶⁰⁾

(나) 戊戌(1598) 〇09월 30일 壬子

咸悅에 머물렀다. 꼭대기에 올라 백마강 하류를 굽어보았다. 거울 면이 하늘과 나란히 하듯 풍파가 일어나지 않았다. 먼 포구로 돌아가는 돛단배가 위아래에 떠 있는 모양은, 한강에 견주어도 그 풍경이 뒤지지 않을 것이다. 애석하게도 사람이 죽고 흩어졌는데, 경치만은 유독 옛날과 같으니, 유람하는 흥취에 감탄과 탄식이 엇갈린다. 〇臨陂 장에 가서 나무를 팔았다.⁶¹⁾

60)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秋九月」, “九日 辛卯 具天賚 雲黃老 林景珍 蘇道淵 崔子昂 各携壺酒來會于亭 蘓上舍仲綏 吳上舍彥一 蘇仲益 鄭上舍夢說 共會極歡而罷.”

61)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秋九月」, “三十日 壬子 留咸悅 登蚕頭俯臨白馬江下流 鏡面齊天風波不起 遠浦歸帆泛泛上下 雖漢江不讓其風景 惜乎人殘民散 景獨依昔遊覽興懷感慨係之矣 〇余往臨陂市 賣木.”

정경운은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피난을 함께한 同類와 피난처의 선비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하고 있었다. “戊戌(1598) 〇08월 12일 乙丑: 임금께서 다만 두 끼를 드실 뿐이고, 우의정 李德馨이 全州에 도착했는데, 역시 아침과 저녁만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時事가 걱정스럽다.”⁶²⁾의 기록처럼, 국가의 안위와 그때의 전시상황을 주변의 벗과 논의하는 장면도 다수 존재했고, 위의 (가)처럼 전쟁과 피난을 잠시 잊고 노니는 장면도 있었다. 역설적이지만, 정경운은 이를 통해 피난민의 참혹한 心狀을 극복하고 있었다.

(나)의 글은 정경운의 현재 상황과 복잡 미묘한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함열장에서 임피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백마강 주변의 산수를 완상하고 있는 장면이다. 주지하다시피 소금 장수로서의 정경운은 고되고 힘든 여정과 적은 수익을 얻기 위해 많은 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 와중에 백마강의 포구와 돛단배의 아름다운 정경이 생사를 부지하기 힘든 전쟁통에서 느끼고 있었다. 지난 서울 한강의 풍광과 비교해도 뛰어나다고 하니, 잠시나마 유람의 흥취를 느끼며 참혹한 心狀을 극복하고 있었다.

(가) 戊戌(1598) 〇09월 26일 戊申

陳都督과 統制使 李舜臣이 서로 배를 연결해 적을 포위하여 보급로를 끊어버렸다. 아울러 그들이 물 길는 길마저 차단하였다. 마치 竹筒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더 이상 적들이 출입할 수가 없게 되자, 적의 무리는 낙담하여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저도 모르게 기뻐서 뛰었다.⁶³⁾

(나) 戊戌(1598) 〇01월 06일 壬辰

시 한 수를 읊었다. 명나라 군사가 左道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적장 清正(가토 기요마사)을 사로잡고 적의 목을 수천이나 베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이 믿을 만하다면 전에 없는 위대한 공로로 우리나라를 다시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다

62)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〇08월 12일 乙丑 참조.

63)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秋九月」, “二十六日 戊申 聞陳都督與統制使李舜臣連船圍賊絕其餉道 又扼其汲路賊不得出入 如在竹筒 賊衆破膽死咋云 聞來不覺喜躍也.”

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는가.⁶⁴⁾

(다) 戊戌(1598) 001월 19일 乙巳

식전에 屈餉에 도착했다. 오는 도중에 시 한 수를 읊었다. ○오후에 비가 왔다. 鎮安縣監 吳翼承의 편지를 보았다. 두루 평안하다고 하니,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다.⁶⁵⁾

피난민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적군이 괴멸되어, 전쟁이 종식된다는 소식일 것이다. 정경운은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전쟁과 관련된 소식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위의 (가)는 적들이 포위되어 출입할 수 없고, 차단되어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陳都督과 統制使 李舜臣의 전쟁 승리의 쾌거가 자신의 일인 것처럼, 좋아서 기뻐하며 자신도 모르게 발을 구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心狀의 변화는 일본군과의 전시상황이 우세할 때마다 드러나고 있다. 이는 외부적인 요인이 정경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었다. 그는 (나)와 (다)처럼, 피난 생활 중 이동하거나, 힘들 때 시창을 한 기록이 빈번하게 나온다. 구체적인 시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자주 시를 읊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10월 12일 기록에는 소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洪壽之의 집에 머물며, 주변의 산수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강어귀에 바라본 바다는 끝이 간 데 없고, 산천이 둘러져 있어, 읊하고 있는 地勢에 감탄하고 있었다. 비록 소금은 마련 못했지만, 주변의 산수를 잠시 완상하거나, 스스로 힘든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시를 읊고 있었다.

戊戌(1598) 003월 19일 甲辰

적의 무리들이 가지 않고 長水縣 안에서 출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행을

64)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春王正月」, “六日 壬辰 詠一絶 聞天兵大捷于左道 生擒賊將清正 斬首數千級云 言若可信無前偉烈再造我國 何喜如之.”

65)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春王正月」, “十九日 乙巳 食前到屈餉 道中詠一絶 ○午後雨 見吳鎮安翼承簡子 備審平安 何慰如之.”

이분 사람들이 비를 무릅쓰고 德翁의 집을 떠나 全州로 향하고, 나머지는 모두 高山으로 향했다. 점심때 학두재 [鶴頭峴] 를 넘어 시냇가의 들판에 도착했다. 길에서 시 한 수를 읊었다.

噫咄咄彼蒼者	아! 저 하늘이여
使凶賊殲我人	흉적들로 하여금 우리 백성들 다 죽게 하네
向高山終日雨	고산을 향해 가는데 종일토록 비 내리고
萬疊峯千重雲	만 겹의 봉우리에 구름은 천 겹이구나 ⁶⁶⁾

위의 시는 정경운이 남겨 놓은 시문이다. 이처럼 정유재란기에 구체적인 시를 창작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게 유일하다. 그는 적의 횡포와 만행이 우리의 백성을 다 죽게 한다고 노래하고 있으며, 종일 비가 내리는 장면이 그가 헤쳐 가야 할 피난의 삶과 유사해서 슬픔을 자아내게 한다. 하지만 만 겹의 봉우리와 천 겹의 구름의 산수를 통해 그는 우울한 心狀을 극복하고 있다.

정경운은 마음의 상태가 양극단을 치달을 때마다 시를 읊으며 그 성정을 中和하고자 했다. 그가 조용히 앉아 벗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과 혼자 조용히 앉아 ‘靜’을 추구하는 모습은 高遠한 선비의 모습이였다. 그가 피난의 마지막 생활을 청산하고 떠날 때에, “○11월 27일 戊申: 具天賚의 韻에 次韻한 시를 李益山⁶⁷⁾에게 주며 이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시를 통해 그의 정서를 표현, 中和하고 있었다.

정경운은 피난민의 일상사에 적절하게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참혹한 일상과 제사도 제대로 못 지내는 형편 등에서 울분을 드러내며 통곡하고 있었다. 하지만 벗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러한 心狀을 극복하고자 했다. 아름다운 산수를 접하면서 자신의 신분과 仙境이 역설적인 마음으로 다가와 현실적으로 직시하지만, 잠시나마 그 유람의 흥취를 즐기며

66) 『고대일록』 제3권, 「戊戌(1598), 春三月」, “十九日 甲辰 聞賊徒不去 出沒于長水縣內 一行之人冒雨 而發德翁向全州 其餘皆向高山 午逾鶴頭峴 到溪邊野處 路詠一絕 噫咄咄彼蒼者 使兇賊殲我人 向高山終日雨 萬疊峯十重雲.”

67) 李益山은 益山郡守 李尙吉이다. 피난민 정경운에게 그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교유한 인물이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좋을 때, 나쁠 때마다 시를 읊으며 성정을 中和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IV. 결론

정경운은 임진왜란 시기에는 의병 활동을 했지만, 정유재란 시기에는 피난민이 된다. 본 논의는 피난민 정경운의 호남 체험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는 부득이 피난민의 신분으로 호남을 체험하게 된다. 이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특별한 경험이 된다. 그렇지만 정경운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유재란 이후의 삶은 남계서원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된다.

甲午年(1594)에 盧志夫와 함께 院任을 받았다. 丁酉再亂 이후에 志夫는 몸을 상하여 죽었고, 나 홀로 고향으로 돌아와 一蠹書院과 鄉賢祠를 관리하였는데 만분의 보탬이 있었다. 庚子年(1600)에 盧丈이 院長이 되어, 서원을 옮기는 논의를 나와 함께 발의하여 옮길 장소를 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盧丈이 갑자기 죽자 아무도 이 일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고, 일 년 만에 못 사람들의 반대로 중지되었다. 얼마 되지 않아서 盧益山 어른이 院長이 되어 같은 생각으로 학교를 일으켰는데, 잇달아 죽어 기약했던 바의 일을 마치지 못했고, 姜克修에게 傳任되었다.⁶⁸⁾

위의 글은 1605년 04월 07일의 기록이다. 정경운은 피난지에서도 노지부와 항상 가까이 지내며, 그의 죽음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위의 글은 정경운이 얼마나 남계서원에 관심이 많은 가를 알 수 있다. 그는 “瀨溪書院에 모여 河禮山에게 山長이 되어주기를 청했다. 모인 사람이 20여 명이였다.”⁶⁹⁾라고 기록하듯이, 서원 원장을 새로 뽑기 위해 모이기도

68) 『고대일록』 제4권, 「乙巳(1605), 夏四月」, “七日 辛亥 甲午與盧志夫同受院任 丁酉再亂後 志夫以毀 而滅性 余獨還鄉經理 一蠹書院及鄉賢祠 粗有萬分之補 庚子盧丈爲山長 同起移院之議 卜地創立 盧丈遽殞 言無聽唱無和者 一歲而爲衆楚所困 未幾盧益山丈 爲山長志同興學 而繼殞未就事無訖期傳任於姜克修.”

한다. 하지만, 그는 항상 원장님과의 만남과 사당 배알, 서원 관리 등으로 서원을 방문하고, 同人들과 함께 잠을 자기도 한다. 이로 인해 그는 주지하다시피, 1617년에는 남계서원의 원장이 된다. 『고대일록』의 뒷부분은 진주 및 남계서원에 관한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본 논의는 우선 정경운의 피난 여정을 자세히 살폈다. 그는 한 번에 호남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적의 추이와 동태를 살피며 피난을 하고 있었다. 주로 사찰이나 고개 현의 깊숙한 골짜기에 숨어서, 피난하고 있었다. 그 여정은 단순한 게 아니라 고달프고 힘든 여정이었다. 그가 피난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용담현 관사에 기거하게 된 점이 말해준다.

하지만 그의 피난 생활은 삶의 위기이었고, 궁핍한 일상이 연속되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전염병, 질병 등이 피난민을 괴롭혔고, 가족과 주변 동류의 죽음도 목격하게 된다. 더욱이 딸과 아들, 친한 벗 노지부의 죽음은 삶을 지탱하기에 참으로 힘든 것이었다. 게다가 마을과 시장 등에서 구걸을 하는 장면은 선비로서의 가장 치욕적인 수치인 것이었다. 그는 나머지 가족과 식솔을 위해 갱생의 노력을 하게 된다.

정경운은 피난민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농·상인을 自處했다. 특히 장시 활동은 힘든 이동 과정과 실패 및 적은 수입 등으로 오히려 질병을 유발하고 있었다. 나아가 직접 메밀 농사를 짓지만, 적은 수확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同類와 함께 고기를 잡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다. 정유재란기 그의 호남 체험은 피난민으로서 일시적인 소금 장사꾼, 농사꾼으로 전락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참혹한 일상을 그의 적절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비참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러내며 피난 체험을 극복하고자 했다. 同類와 더불어 작은 모임을 형성해, 대화하며 노닐기도 했다. 정경운은 전쟁의 참혹함을 극복하고 있었다. 시를 읊으며 성정을 中和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그의 호남 체험은 다양한 想念과 마음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었지만, 선비로서의 ‘靜’을 유지하며 안정된 마음을

69) 『고대일록』 제4권, 「丙午(1606), 冬十月」, “丙申 朔會 濫溪書院 請山長于河禮山 會者 廿餘人.”

가지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정경운과 『고대일록』과 관련된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피난민의 일상사를 비교 연구해야 한다. 전쟁 실기는 의병 활동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선비가 국난을 대처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그 心狀을 분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격체인 선비의 형상을 확립할 수 있다. 둘째, 임란 시기 의병 활동을 함께 한 인물들의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일기자료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비록 기록이 있지 않은 인물 역시 대상으로 하여 전체적인 지형도 및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문학적인 형상화도 중요하겠지만, 전쟁사·문화사·생활사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두 논의를 진정으로 해결한다면, 의병장의 心學,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올바른 선비상을 확립할 수가 있다. 즉 죽음 앞에 선, 선비의 인격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이 논문은 2022년 1월 29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정경운, 『고대일록』

정경운 · 남명학연구원 옮김, 『고대일록』 상 · 하, 태학사, 2009.

경상국립대학교 고문헌도서관(nmh.gnu.ac.kr/)

한국고전종합 DB(<https://db.itkc.or.kr/>)

『論語』

『詩經』

김운우, 「임진왜란 400주년 기념 학술대회 특집호 - 경상우도 의병활동의 재조명 (남명학과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논문: 「감양 의병유사 정경운과 『고대일록』」, 『남명학연구』 2, 1992.

노영구, 「전쟁과 일상-孤臺日錄을 통한 임진왜란 이해」, 『역사와 현실』 64, 2007.

민덕기, 「임진왜란기 정경운의 『孤臺日錄』서 보는 아래로부터의 聞見정보」, 『한 일관계사연구』 45, 2013.

박다현, 「『孤臺日錄』에 나타난 정경운의 인물평가」, 『역사교육논집』 59, 2016.

박병련, 「기획논문: 『孤臺日錄』에 나타난 정치사회적 상황과 의병활동의 실상」, 『南冥學』 15, 2010.

방기철, 「韓國思想 史學: 鄭慶雲의 전쟁 체험과 일본 인식」, 『韓國思想과 文化』 68, 2013.

설석규, 「기획논문: 鄭慶雲의 현실인식과 『孤臺日錄』의 성격」, 『南冥學』 15, 2010.

신병주, 「기획논문: 『고대일록』을 통해서 본 정경운의 영원한 스승, 정인홍」, 『南冥學』 15, 2010.

원창애, 「일반논문: 『고대일록』을 통해본 함양 사족층의 동향」, 『남명학연구』 33, 2012.

윤호진, 「孤臺 鄭慶雲의 詩文과 作品世界」, 『남명학연구』 41, 2014.

자료조사부, 「16세기 유학사상의 전개와 그 특성, 영인자료: 『고대일록』 권 4 (2)」, 『남명학연구』 3, 1993.

- 자료조사부, 「임진왜란 400 주년 기념 학술대회 특집호, 일반논문: 『고대일록』 해제 및 자료 권 1, 『남명학연구』 2, 1992.
- 장경남, 「『고대일록』으로 본 정경운의 전란 극복의 한 양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57, 2015.
- 정우락, 「『고대일록』에 나타난 서술의식과 위기의 일상, 『퇴계학과 유교문화』 44, 2009.
- 채휘균, 「조선중기 과거응시자들의 과거여정과 체험 - 『孤臺日錄』과 『溪巖日錄』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논총』 59, 2015.
- 최재호, 「기획논문: 壬亂 戰爭實記에 나타난 慶尙右道 義兵의 意識과 視角, 『南冥學』 18, 2013.
- 한명기, 「기획논문: 『孤臺日錄』에 나타난 明君의 모습, 『南冥學』 15, 2010.

Abstract

Jeong Yu-jae-ran-gi Jeong Gyeong-woon's
Honam experience and its meaning

- Focusing on '孤臺日錄' -

Kim, Jong-gu

This discussion analyzed the experiences and meanings of Honam experience of Jeong Yujaerangi (1556-?). '孤臺日錄' records the events related to the Imjin War and the Jeongyujaeran, while Jeong Gyeong-un served as Kim Seong-il's Confucian scholar from 1592 to 1609 and Kim Myeon's so-called Confederate officer. In particular, the records of refugees during the period of Jeongyu disaster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history of war life.

When the Jeongyu disaster occurred, Jeong Kyung-woon made a detailed evacuation plan and was crossing to Honam using deep mountain valleys, hermitages, and temples. Tea 洞 and 六十峴 were base areas for evacuation journeys, and they could not easily live in one place. Five months had passed since he had been evacuated, and he was able to find refuge in Yongdam County.

Refugee Jeong Kyung-woon's experience in Honam was first, continuing a life of crisis and poverty. He had to bear the plagues caused by war and the diseases of poverty, and he had to sense the misfortune of losing his daughter and his late-born son. He had to take care of the rest of the household, so he was living his life by enduring the pain of going to villages and markets to beg.

Second, in order to survive as a refugee, he becomes a salt merchant

and becomes a merchant. He bought salt and reselled it, and he continued his other long-term activities. He went to the market with his partner without doing anything and spent a lot of time devising ways to live with information such as war. He farmed himself, but the harvest was minimal.

Third, it revealed the individual's heart and desires to overcome war. He was weeping for the destruction of daily life such as ancestral rites. However, he was overcoming the resentment of war refugees by socializing with his friends. Through the mountains and waters, he enjoyed his love for a while, revealing his paradoxical heart. He tried to reconcile his mind by writing poetry.

keywords :

Godae Jeong Gyeong-un, 孤臺日錄, Jung Yoo Jae-ran, refugees, Honam Experience, daily life, merchant, heart